

여수시, 섬섬여수페이 20% 특별할인 실시

10월 2일 오전 9시부터 충전·결제 각각 100억 원 규모 시행

여수시(시장 서영학)가 2026여수 세계섬박람회 기간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고, 다가오는 연휴 등 소비 성수기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섬섬여수페이) 대규모 특별할인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할인은 충전 할인과 결제 할인을 결합해 최대 20%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에 충전한 상품권뿐만 아니라 기존에 보유한 상품권으로도 결제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상품권 보유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할인은 오는 10월 2일 오전 9시부터 충전 할인 100억 원, 결제 할인 100억 원 규모로 시행되며, 각각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상품권 'chak(착)' 앱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결제 할인은 5천 원 이상 결제 시

10%가 적용된다. 가맹점 영수증에는 할인 전 금액이 표시되며, 할인 내역은 지역상품권 'chak(착)' 앱 '이용내역-결제'에서 해당 결제 건을 선택한 후 '프로모션 할인'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시행한 결제 할인에서 가맹점 1개소당 평균 상품권 관련 매출액이 138만 2,770원으로, 전월 103만 5,712원보다 3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이번 특별할인을 다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긴 연휴 동안 시민과 관광객들이 여수의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기며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이번 할인 정책을 마련했다"며 "소상공인들은 QR 결제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고, 시민과 관광객들도 섬섬여수페이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

했다. 한편,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QR 결제'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도입 시 카드 수수료가 면제되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특별할인은 충전과 결제 할인을 결합해 최대 20%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에 보유한 섬섬여수페이로 결제해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전 할인과 결제 할인은 각각 100억 원 규모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시는 할인 혜택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의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유빈 기자

섬섬여수페이

10월 충전+결제

판매기간 2026. 10. 2. (금)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충전할인

- 발행액 100억원
- 할인율 10%
※지류형 7% 할인
- 구매한도 월 30만원(카드형·지류형 통합한도)
- 보유한도 월 70만원
※ 60%이상 사용 시 충전금액 환불 가능

결제할인

- 발행액 100억원
- 할인율 10%(카드·QR결제시)
- 5천원 이상 결제 시 10% 할인
- 1인당 월 최대 3만원

여수시

섬섬여수페이 10월 특별할인 안내문

/여수 시청 제공

순천 선암사 측간 국가민속 문화유산 지정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500년 역사의 순천 선암사 측간이 '국가민속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해우소(측간)는 승려공동체의 생활규범과 수행문화가 반영돼 사찰의 생활민속을 잘 보여주는 공간이다. 전통 해우소가 지취를 감취하는 가운데 선암사 측간은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선암사의 수행전통을 상징하는 등 민속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유산에 지정됐다.

선암사 측간은 일주문 중수 기록(조계문중창상량문)에 따르면 1540년 청축(靑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건립되었으며, 이후 정랑(淸廊)·대변소(大便所)·뒤향(뒷간) 등으로 불렸다. 현재까지의 역사와 명칭 변천을 통해 선암사 측간은 사찰의 생활문화와 수행 전통을 함께 보여주는 중요한 민속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유빈 기자

광양, 백운산 산림박물관서 '산에 스며든 수목의 정원' 전시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백운산자연휴양림 내 산림박물관에서 10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산림을 주제로 한 한국화 초청전 '산에 스며든 수목의 정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산림과 예술을 함께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광양평생교육관 한국화 동아리 '탐미회'를 초청해 마련됐다.

탐미회 회원 14명이 산을 주제로 한 수목화와 아크릴화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한 편의 동화를 감상하듯 작품 속 이야기를 따라가며 작가마다 서로 다른 시선으로 표현한 자연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시 관람과 함께 백운산자연휴양림의 산림휴양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휴양림 내에는 치유숲, 생태숲,

향토길, 목재체험장 등이 운영되고 있어 관람객들은 전시를 감상한 뒤 산림 체험과 휴양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산림박물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입장은 오후 5시에 마감한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며,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날 휴관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별도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단체 관람은 사전 예약을 권장한다. 예약 및 문의는 휴양림과(☎061-797-3908, 3909)로 하면 된다.

반희숙 휴양림과장은 "관람객들이 작품 감상과 함께 백운산자연휴양림에서 산림 체험과 휴양을 즐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과 협업해 산림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전시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장미정원 전문가 양성 교육 본격 추진

곡성군이 지역민의 정원 관리 역량을 높이고 장미정원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 나선다. 군은 전남과학대학교와 RISE 연계 사업을 통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장미정원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4회, 16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장미정원 관리에 관심 있는 지역민 11명이 참여한다.

첫 교육은 9월 29일 전남과학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교육에서는 전문숙 강사(남도조경수목관리)가 장미의 생육 특성과 관리 방법을 비롯해 주요 병해충의 종류와 진단, 방제 방법 등을 중심으로 이론교육을 진행했다.

이어지는 교육에서는 장미 삽목과

접목 방법을 배우고 직접 실습하며, 장미 전지·전정 방법과 관리 기술을 익히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곡성읍진강기차마을 정원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해 실제 정원 관리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현장 교육은 관광과 김민성 주무관이 맡는다.

특히 이번 과정은 단순한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장미를 직접 재배·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단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생들은 장미의 생육 특성을 이해하고 병해충을 진단·관리하는 방법부터 삽목·접목, 전지·전정 등 정원 관리에 필요한 실무 기술까지 폭넓게 습득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일규 기자

구례군, 감정노동 종사자 대상 마음한잔 안부한마디 캠페인 성황리 운영

구례군보건의료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9월 28일과 30일 구례군청과 구례읍사무소, 구례경찰서, 구례소방서 등 4개 기관을 찾아 감정노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음 한잔, 안부 한 마디' 캠페인을 운영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소방·민원 공무원 등 업무 과정에서 높은 정서적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종사자와 재난피해자 등 심리적 고위험군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각 기관을 방문해 음료와 간식을 전달하고 업무 중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동료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과 격려의 문구를 직접 작성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2026

년 자살예방 실천 메시지인 '생명보호가 일상으로, 서로의 안부를 나누세요'를 알리며 직장 내에서 서로의 심리 상태에 관심을 갖는 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례군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경찰·소방 등 특수직군과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마음건강 지원을 이어가고, 정신적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 상담과 전문 지원으로 연계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도 강화할 계획이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경찰·소방·민원공무원 등은 업무 특성상 정서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음건강을 살피는 문화가 일상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선섭 기자

